

# 전주시, 기습 폭우 대비 가동천 정비 박차

### 완산구 석구동 덕천사 입구 부근~삼천 합류점 2.6km 구간 정비... 2028년 8월 준공 목표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 속도

전주시가 기습적인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완산구 석구동 덕천사 입구에서 삼천 합류점에 이르는 가동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본격 나섰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가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착공해 오는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되고 있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완산구 덕천사 입구 부근에서 지방하천인 삼천 합류점까지 총연장 2.6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고, 노후화되었거나 교량 아래 공간이 낮아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교량 9개소를 재가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사계약 후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일시정지했던 공사를 지난 5월부터 본격 해제하고 재착공에 돌입했다.

시는 재착공에 앞서 지난해 12월 하천구역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보상 계획

공고와 토지분할을 마무리해 면적 대비 49%의 보상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둔 지난 5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하고,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후 시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상 상황을 고려한 차수별 공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등 토지 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시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하천 일대의 통수능력이 크게 확대돼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침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을 위해 하천 통수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량 재가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정미와 태풍에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천 수해 예방과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는 23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성일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 가맥지기 자원봉사자 3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 발대식을 가졌다.

## '전주가맥축제' 성공 개최 이끈다

###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 자원봉사단 '가맥지기 발대식' 개최

전주를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전주가맥축제'가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된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23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성일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 가맥지기 자원봉사자 3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가맥축제' 가맥지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이성일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선언 △축제 소개 △직무·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민의 독특한 문화

인 '가맥'을 주제로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하이트진로, 지역가맥업체들이 함께해 온 전주 대표 여름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가맥축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가맥지기'는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으로, 축제 운영과 홍보, 대외협력까지 전주가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해도 앞장서게 된다.

한편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가맥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재개발사업 핵심 공정에 지역업체 참여 이끌어

### 진북동 동아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지역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 참여 확정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핵심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사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덕진구 진북동에서 진행 중인 골드클래스 시그나처로 10개 동, 지상 20층, 65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신만호), 동아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대표 정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지난 3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골드클래스 시그나처 조감도.

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업무협약

으로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우수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지역업체 수주에 적극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선정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민·관 협력의 결실로 평가하고,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과 금암광장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뿐 아니라 지역 인력 고용과 지역 자재·장비 사용 확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시공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공정인 만큼 지역업체 선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공사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전주시, 9월까지 순차 구축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건물이 없는 도심 속 시설물과 응급대처시설은 물론, 산속 등산로나 저수지 주변에서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부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생활 밀착형 공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소정보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물이나 장소에 주소를 입히는 '사물주소 부여'와 주소 체계가 없는 비주거지역의 '국가지점번호관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전주시 전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도심 내에서 시민 수요가

높은 6종의 시설물 총 531개소를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새롭게 부여한다.

세부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49개소) △어린이보호 CCTV(180개소) △보호수(20개소) △자동심장충격기(115개소) △목욕소화전(165개소) △파크골프장(2개소)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어린이보호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보호수 등 3종에 대한 주소 부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물도 오는 9월까지 주소 부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주소 체계가 없는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해서는 국가지점번호 판 총 16개(신규설치 14개, 멸실건 재설치 2개)를 상반기 내에 집중 확충하기로 했다.

주요 설치 지역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모악산 등산로(7개) △백석공원 일원(3개) △행치봉 등(6개)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의회, 당선인 상견례·의정활동 교육 실시

전주시의회가 내달 1일 제13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간 상견례와 의정활동 교육을 갖는 등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회는 23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제13대 의회 당선인 36명(초선 17명, 재선 이상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와 당선의원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당선인들은 앞으로 4년간 전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의회는 상견례 후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장 유재균 박사가 강사로 나서 △의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과 요령 △의정활동 손자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의정활동 교육은 제13대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는 23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제13대 의회 당선인 36명(초선 17명, 재선 이상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